

‘관광 연계’로 광주 마이스산업 활성화 견인

#일주_이슈

관광재단·DJ센터 통합 ‘전시+관광’ 참가자 체류일 ‘0.35일’로 5위 그쳐 타 지자체와 경쟁 심화·전략 시급 ‘민간 협업·신규사업 개발 나서야’

고부가가치 복합전시산업 ‘MICE(마이스)’가 민선 8기 광주시 목표인 도시 이용 인구 3000만명 시대를 열어갈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가 (재)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DJ)센터를 통합해 ‘광주관광공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마이스산업의 핵심인 ‘전시·회의’와 ‘관광’을 결합해 광주를 머무르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많은 지자체가 앞다퉀 관광객 유치에 나선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광주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광주전남연구원원의 지난해 7월 한달 간 광주·전남 관광지의 내비게이션 검색량 통계에 따르면 DJ센터 검색량이 광주·전남 전체 6위, 광주에선 1위를 기록했다. 7월 한달 통계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지만 광주 지리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DJ센터를 가장 많이 찾은 셈이다. 그만큼 광주 마이스산업이 외국인들을 끌어 모으는 중심지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마이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광산업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시는 현재 광주관광재단과 DJ센터를 통합한 ‘광주관광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까지 출범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9년 마이스참가자 분석 결과, 7개 권역 가운데 광주·전남 마이스 행사 참가 목적 외 체류일수는 0.35일로 5위에 그쳤다. 지역 내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 나오는 이유다.

마이스산업을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전시·국제회의 등의 마이스산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자 지자체들이 앞다퉀 전시컨벤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있다.

현재 컨벤션센터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17곳으로 2년 뒤인 2025년엔 23개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국제회의’ 기준이 완화된 점도 지자체별 경쟁을 부추길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회의의 기준이 경쟁국이나 국제기구 대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됐다고 판단, 국제기구 가입 대상은 5개국→3개국, 체류 3일 이상→2일 이상, 참가자 300명→250명으로 축소했다. 국제기구 미가입 대상은 외국인 150명→100명으로 완화했다. 기준 완화로 광주시가 타 국가와의 국제회의 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타 지자체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광주만의 경쟁력 있는 마이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목 DJ센터 사장은 “광주의 전시산업은 한정된 전시공간 탓에 취약한 수준이다”면서 “지역 전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전시기획사와의 협업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과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전시회를 전문화, 글로벌화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광주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광주 마이스 행사가 도시 전체를 개최로 활용하지 못하고,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며 “광주관광재단과 DJ센터의 통합을 토대로 새로운 관광전략과 산업에 대한 기획력을 강화하고 마이스 전·후방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김성수기자

마이스(MICE)란 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 4개 비즈니스 분야를 일컫는 말.



프로야구 시범경기 주말인 19일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시범경기에서 관중들이 힘찬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나건호기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유지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일반약국 및 의료관련 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일반 약국 등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 3종과 의료기관, 일반약국은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7일 고시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되도록 안내하고, 현장점검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시·도는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과 감염 취약시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여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병철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의료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지·최황지 기자

광주사람들 (509/1000)

김주술
구두장인

▶관련기사 17면

우리 고향 살리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제1회 호남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전국 8도 고향사랑 페스티벌]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수원컨벤션센터

주최 전남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

내 고향 살리는 따뜻한 마음